



HSBC의 보험사업 매각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 금융위기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유럽의 대형 복합금융그룹들의 보험사업 매각과 더불어 공적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HSBC도 2010년부터 사업구조조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HSBC는 2010년부터 52건의 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남미, 유럽시장의 생·손보 사업을 최근 매각하였음. HSBC의 구조조정은 보험업의 수익성 악화보다는, 바젤3 등 글로벌 금융산업 자본규제 강화로 은행의 보험업 경영에 따른 자본 비용 상승에 대비하는 전략이라고 판단됨. HSBC의 보험사업은 생명보험 비중을 확대하고, 생명보험사업을 자산관리사업과 연계하며 보험상품 제조 보다는 판매에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됨. 한편 바젤3 등 글로벌 자본규제 강화는 국내외 금융회사의 상품포트폴리오, 자산운용 전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업권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공적자금 지원조건으로 보험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ING그룹과 더불어 2010년 이후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HSBC그룹도 보험사업 매각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100억 유로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ING그룹에 대해 EC는 보험사업 부문의 자본부족이 은행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ING그룹은 보험사업 부문을 매각하기로 하였음.¹⁾
- HSBC그룹은 2009년 3월 175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발행하며 자본을 확충, 공적자금 지원을 회피하였으며 2010년 이후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²⁾
- 2010년부터 52개 매각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매각대상 17건 중 9건이 보험사업임.
 - 유럽과 남미, 아시아 지역의 생·손보 사업 매각은 상당부분 완료되었는데, 아시아와 남미지역의 일반손해보험 사업을 프랑스의 AXA, 호주의 QBE 보험에 9억 1,400만 달러에 현금으로 매각하였고 AXA, QBE와 10년간 방카슈랑스 계약을 체결하였음.

1) 전용식·임준환(2012), 「ING그룹의 보험사업 부문 매각의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7건의 인수를 통해 사업을 확장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구조조정인 것으로 보임.

〈표 1〉 HSBC의 주요 보험사업 매각·추진 현황

매각 기업	업종	거래 완료 시기	거래가격	인수 기업
General Insurance in Argentina	일반손해보험	2013. 4월		QBE Insurance Group
General Insurance in Mexico	일반손해보험	2013. 4월	4억 2,000만 달러	AXA Group
General Insurance in UK	일반손해보험	2012. 3분기	6억 8,500만 파운드	Syndicate Holdings
General Insurance in Ireland	일반손해/ 재보험			Catalina Holdings
General Insurance in France	일반손해보험			매각 계획
Ping An	생명보험	2013. 2월	93억 8,500만 달러	CPG
Hong Kong Insurance	일반손해보험	2013. 4월	-	First Niagara Financial Group
Singapore Insurance	생명보험	2013년 말(예정)	-	AXA Life Insurance
Taiwan Insurance	생명보험		1,800만 달러	Allianz Taiwan Life Insurance
Vietnam Insurance	생명보험	2013년 상반기(예정)	3억 4,000만 달러	Sumitomo Life Insurance

자료: HSBC.

■ 매각사업 선정기준으로 여섯 가지를 선택하였는데 Global Risk Standards가 사업 지속여부 결정의 최종 변수였음.

- 전략의 연계성(Connectivity), 지역 경제발전 단계, 사업의 수익성, 효율성, 유동성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투자(Invest)”, “개선(Improvement)”, “현 상태 유지(As Is)”, “철수(Dispose)” 등 전략적 의사결정 여부가 결정됨.
- 여섯 번째 기준인 Global Risk Standards 여부에 따라 사업의 범위와 지역을 선정, 52개 매각 사업을 결정하였음.
 - 영국에서의 고객배상, 미국 돈세탁 혐의 등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부각

-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 상품설계와 판매를 자산관리사업과 연계하려는 것으로 보임.
- HSBC그룹의 수익성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2006년 이후 전세계 금융업권별 수익성을 웃돌고 있어 은행·보험업 겸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보험사업 매각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임.
 -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한 평균 ROA는 0.64%, ROE는 9.99%로 전세계 보험산업 ROA 0.54%, ROE 8.94%, 전세계 상업은행 ROA 0.36%, ROE 7.7%를 웃돌고 있음.
 - 전세계 금융업 ROA 0.40%, ROE 7.52%를 웃돌고 있음.

〈표 2〉 HSBC와 금융업권별 자본이익률, 자산이익률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HSBC	ROA	1.00	0.97	0.27	0.27	0.59	0.72	0.58
	ROE	14.51	15.71	5.52	5.68	9.77	11.18	8.78
MSCI 전세계 금융	ROA	0.93	0.69	-0.31	0.15	0.33	0.20	0.26
	ROE	17.44	13.38	-7.02	2.90	5.95	3.66	4.72
MSCI 전세계 상업 은행	ROA	0.82	0.71	-0.17	0.21	0.28	0.14	0.21
	ROE	17.66	14.92	-3.98	5.51	6.04	2.91	4.52
MSCI 전세계 보험	ROA	0.97	0.70	-1.47	0.42	0.54	0.51	0.54
	ROE	16.48	12.14	-30.48	8.37	8.99	8.13	7.95

자료: Bank Scope.

- 보험사업의 수익성·성장성 하락으로 인한 매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금융감독규제 강화」라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인 것으로 판단됨.
 - 유럽에 거점을 두고 은행과 보험업을 겸영하고 있기 때문에 바젤3, 솔벤시2 시행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에 따른 자본비용 상승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임.
 - 2010년부터 추진된 52개 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될 경우, 950억 달러의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그룹 위험가중자산 1조 1,290억 달러의 8% 수준임.

■ 바젤3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은행의 자회사 지분투자가 보통주자본에서 공제되는데, 특히 보험자 회사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본감소는 수익성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맥킨지의 분석에 의하면 유럽은행의 경우 바젤3 시행으로 은행 수익성은 2010년 2분기 세전 ROE 기준으로 25~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³⁾
- 바젤3에서는 은행의 보험회사 투자지분에 대한 자본의 이중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투자지분 공제규제를 강화하였음.
- HSBC의 경우 보험자회사로 인한 자본공제 규모는 133억 달러로 전체 공제규모 371억 달러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⁴⁾

■ 시행시기가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되기는 하였으나 솔벤시2가 시행될 경우, 유럽 보험회사들에 대한 요구자본 규제가 강화되어 보험자회사의 자본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솔벤시2는 보험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리스크에 근거하여 지급여력 요구자본을 규제하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유럽 보험회사의 자본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요구자본의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HSBC의 보험사업 매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규제강화와 사업의 단순화, 집중(Focus)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HSBC 그룹의 수익성과 성장성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바젤3와 솔벤시2, SIFI규제, 그룹감독 강화 등으로 규제비용이 상승하였고, 금융위기 이전 은행·보험 겸영으로 인한 자본효율화의 장점이 퇴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HSBC는 2012년 유럽 및 북미 신용스프레드 축소로 인한 22억 달러의 투자손실, 영국에서의 고객배상준비금 23억 4,000만 달러 부과 및 미국 돈세탁 혐의로 인한 합의금 19억 2,000만 달러 등 총 42억 6,000만 달러의 현금유출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3) McKinsey and Co(2010), 「Basel III and European Banking: Its impact, how banks might respond, and the challenges of implementation」.

4) JP Morgan(2010).

■ 해외사업을 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전략에 글로벌 복합금융그룹의 사업구조조정 추세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 해외시장에서 상품, 판매채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방카슈랑스 전략은 은행·보험업 겸영, 조인트 벤처에서 전략적 제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복합금융그룹의 상품 전략이 수정될 것으로 보임.
- 바젤3가 시행된 일부 국가⁵⁾에 진출한 글로벌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여 보험산업의 글로벌 M&A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사업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나 인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도 바젤3가 시행될 경우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형금융그룹들의 사업전략이 변화할 수 있어 국내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국내은행들의 경우 유동성비율(LCR)이 규제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의 국공채 편입 확대와 은행들 간의 소매예금 유치경쟁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음.⁶⁾
- 은행들의 국공채 편입 확대는 국공채 가격 상승(금리하락)으로 이어져 자산운용수익률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은행들의 소매예금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금융그룹의 교차판매를 통해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 국내 보험회사들의 마케팅 환경은 악화될 우려가 있음.

kiri

5) 2003년 1월 1일부터 바젤3가 시행되는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 일본,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스위스 등임.

6) KIS Credit Report(2012. 9).